

Skennen'kó:wa ken?

(Do You Carry Great Peace?) Lexicon

《스칸나 고와 경?》

(당신은 커다란 평화를 품고 있습니까?) 어휘 해설

Dish With One Spoon

A centuries-old treaty and legal agreement between the Haudenosaunee, Anishinaabe, and allied nations that affirms a shared responsibility to care for the land and its resources. The “dish” represents the shared territory, while the “one spoon” reminds everyone to take only what they need and ensure there is enough for future generations. The agreement also teaches that there are “no knives” at the table, symbolizing peace and the commitment not to harm one another. Today, the Dish with One Spoon continues to guide conversations about environmental stewardship, reciprocity, and treaty relationships.

한 그릇, 한 숟가락 Dish With One Spoon

‘한 그릇, 한 숟가락’은 호데노쇼니(Haudenosaunee)와 아니시나베(Anishinaabe), 그리고 이들과 동맹을 맺은 원주민 네이션(Nation)들이 수세기 전에 체결한 조약이자 법적 합의로, 땅과 그 자원을 함께 돌보아야 한다는 공동의 책임을 담고 있습니다. ‘그릇’은 공동의 영토를 뜻하며, ‘한 숟가락’은 각자 필요한 만큼만 취하고 미래 세대를 위해 충분히 남겨 두어야 함을 일깨워줍니다. 이 합의에는 식탁에 ‘칼이 없다’는 가르침도 담겨 있으며, 이는 평화롭게 지내고 서로를 해치지 않겠다는 약속을 뜻합니다. 오늘날에도 ‘한 그릇, 한 숟가락’은 자연환경을 책임 있게 지키는 일과 서로 주고받는 상호 관계, 조약에 기반한 관계를 어떻게 이어 갈 것인지 논의할 때 중요한 지침이 됩니다.

Haudenosaunee

Meaning “People of the Longhouse,” the Haudenosaunee are a confederacy of six Indigenous nations: Kanien'kehá:ka (Mohawk), Oneida, Onondaga, Cayuga, Seneca, and Tuscarora. Their homelands extend across what is now New York State, Ontario, and Québec. The Confederacy is governed through the Kaianere'kó:wa (Great Law of Peace), an enduring constitutional system founded on consensus, diplomacy, and collective responsibility. Haudenosaunee societies are traditionally matrilineal, with Clan Mothers playing central roles in governance and community life.

호데노쇼니 Haudenosaunee

‘롱하우스의 사람들’이라는 뜻의 호데노쇼니는 가니엔게하가(Kanien'kehá:ka, Mohawk), 오나이다(Oneida), 오논다가(Onondaga), 카유가(Cayuga), 세네카(Seneca), 투스카로라(Tuscarora)의 여섯 원주민 네이션이 이룬 연맹입니다. 이들의 삶의 터전은 오늘날의 뉴욕

주와 온타리오주, 퀘벡주에 걸쳐 있습니다. 호데노쇼니 연맹은 합의와 외교, 공동의 책임을 바탕으로 오랫동안 이어져 온 헌법 체계인 가이아네레고와(Kaianere'kó:wa, 위대한 평화의 법)를 통치의 근간으로 삼고 있습니다. 호데노쇼니 사회는 전통적으로 모계를 따르며, 씨족 어머니(Clan Mothers)는 공동체의 의사 결정과 생활 전반에서 중요한 책임을 맡습니다.

Hiawatha Belt

The Hiawatha Belt is the principal wampum belt of the Haudenosaunee Confederacy and serves as the visual record of the Great Law of Peace. Its interconnected white symbols on a purple field represent the original five nations united through peace while maintaining their distinct identities. The Hiawatha Belt is extremely old, with oral traditions dating its origins back to the 11th or 12th century, specifically around circa 1100–1190 CE, marking the founding of the Haudenosaunee Confederacy. More than a historical artifact, the Hiawatha Belt remains a living symbol of Haudenosaunee unity, governance, and nationhood.

하이아와타 벨트 Hiawatha Belt

하이아와타 벨트는 호데노쇼니 연맹을 대표하는 완펄 벨트이자 위대한 평화의 법을 보여 주는 시각적 기록입니다. 완펄 벨트는 조개껍데기 구슬을 엮어 법과 합의, 역사 등을 기록한 띠입니다. 보라색 바탕에 서로 이어진 흰색 문양은 연맹을 처음 구성한 다섯 네이션이 각자의 고유한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평화로 하나가 되었음을 나타냅니다. 구전 전통에 따르면 하이아와타 벨트의 기원은 11세기 또는 12세기, 구체적으로는 서기 1100년에서 1190년 무렵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 시기는 호데노쇼니 연맹이 세워진 때로 전해집니다. 하이아와타 벨트는 단순한 역사적 유물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호데노쇼니의 결속과 의사 결정 체계, 네이션으로서의 정체성을 보여 주는 살아 있는 상징입니다.

Kaianere'kó:wa (Great Law of Peace)

The Great Law of Peace is the oral constitution of the Haudenosaunee Confederacy. According to Haudenosaunee tradition, it united formerly warring nations through principles of peace, consensus, justice, and shared responsibility. The law is preserved through oral teachings and recorded in wampum belts rather than written texts. As a living constitution, it continues to guide Haudenosaunee governance and diplomacy today.

가이아네레고와(위대한 평화의 법) Kaianere'kó:wa

가이아네레고와(위대한 평화의 법)는 호데노쇼니 연맹의 구전 헌법입니다. 호데노쇼니 전통에 따르면, 이 법은 서로 전쟁을 벌이던 네이션들을 평화와 합의, 정의, 공동의 책임이라는 원칙으로 하나로 묶었습니다. 이 법은 문자로 기록된 문서가 아니라 구전 가르침과 완펄 벨트를 통해 보존되어 왔습니다. 살아 있는 헌법인 가이아네레고와는 오늘날에도 호데노쇼니의 의사 결정 체계와 외교를 이끄는 지침이 되고 있습니다.

Kanien'kehá:ka

Meaning “People of the Flint,” the Kanien'kehá:ka are the easternmost nation of the Haudenosaunee Confederacy. Their traditional territories include present-day southern Québec, eastern Ontario, and northern New York State. Kanien'kehá:ka communities maintain strong cultural traditions grounded in language, kinship, governance, and relationships with the land.

가니엔게하가 Kanien'kehá:ka

‘부싯돌의 사람들’이라는 뜻의 가니엔게하가는 호데노쇼니 연맹에서 가장 동쪽에 자리한 네이션입니다. 전통 영토는 오늘날의 퀘벡 남부와 온타리오 동부, 뉴욕주 북부에 걸쳐 있습니다. 가니엔게하가 공동체는 언어와 친족 관계, 공동체의 의사 결정 방식, 땅과의 관계에 뿌리를 둔 문화적 전통을 굳건히 이어 가고 있습니다.

Kanien'kéha

The language of the Kanien'kehá:ka (Mohawk people), Kanien'kéha belongs to the Iroquoian language family. Although classified as endangered, it has experienced significant revitalization through community-led immersion schools, language programs, and intergenerational teaching. Language is central to Haudenosaunee knowledge, philosophy, and cultural continuity.

가니엔게하어 Kanien'kéha

가니엔게하어는 가니엔게하가(Kanien'kehá:ka, Mohawk)의 언어로, 이로쿼이어족(Iroquoian language family)에 속합니다. 소멸 위기 언어로 분류되지만, 공동체가 주도하는 몰입형 학교와 언어 프로그램, 세대 간 전승을 통해 상당한 활력을 되찾았습니다. 가니엔게하어는 호데노쇼니의 지식과 철학, 문화를 이어 가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Longhouse

The Longhouse is both a traditional Haudenosaunee architectural form and a symbol of the Confederacy itself. The Haudenosaunee describe their nations as living together within one symbolic longhouse, united by the Great Law of Peace while retaining the autonomy of each nation. The Longhouse also refers to contemporary ceremonial and community spaces where cultural and spiritual traditions continue to be practiced.

롱하우스 Longhouse

롱하우스는 호데노쇼니의 전통 건축 양식이자 연맹을 나타내는 상징입니다. 호데노쇼니는 여러 네이션이 하나의 상징적인 롱하우스 안에서 함께 살아간다고 설명합니다. 이들은 각 네이션의 자율성을 유지하면서도 위대한 평화의 법을 통해 하나로 결속됩니다. 오늘날 롱하우스는 문화적·영적 전통을 이어 가는 의례 및 공동체 공간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Matrilineal

Haudenosaunee society is matrilineal, meaning that family lineage, clan identity, and many responsibilities are inherited through the mother's line. Clan Mothers hold important leadership roles, including selecting and removing council chiefs, safeguarding community wellbeing, and ensuring leaders uphold the responsibilities entrusted to them.

모계 Matrilineal

호데노쇼니 사회는 모계를 따릅니다. 가족의 계보와 씨족 정체성, 여러 책임은 어머니 쪽 혈통을 따라 이어집니다. 씨족 어머니(Clan Mothers)는 공동체를 이끄는 중요한 역할을 맡습니다. 이들은 평의회에서 각 씨족을 대표할 지도자를 선임하거나 해임하고, 공동체의 안녕을 지키며, 지도자들이 맡은 책임을 다하도록 살핍니다.

Ohèn:ton Karihwatéhkwén

Translated as “The Words That Come Before All Else,” this Haudenosaunee Thanksgiving Address is recited to begin and conclude gatherings. Rather than a prayer, it is an expression of gratitude acknowledging the people, the earth, waters, plants, animals, winds, celestial beings, and the Creator. The address concludes by affirming that “our minds are now one,” expressing the importance of shared respect and collective responsibility.

무엇보다 먼저 하는 말 Ohèn:ton Karihwatéhkwén

‘무엇보다 먼저 하는 말’로 번역되는 Ohèn:ton Karihwatéhkwén은 호데노쇼니의 ‘감사의 말’(Thanksgiving Address)로, 모임을 시작하고 마칠 때 낭송합니다. 기도라기보다는 사람과 대지, 물, 식물, 동물, 바람, 천상의 존재와 창조주에게 감사를 전하는 말입니다. 마지막에는 ‘이제 우리의 마음은 하나입니다’라고 말하며, 서로에 대한 존중과 공동의 책임이 중요하다는 뜻을 전합니다.

Rematriation

Rematriation is the restoration of Indigenous lands, knowledge, cultural practices, and relationships that have been disrupted through colonization. Unlike repatriation, which often focuses on the legal return of cultural belongings, rematriation emphasizes renewing reciprocal relationships with the land and restoring Indigenous systems of care, responsibility, and matrilineal knowledge. The concept highlights that cultural renewal extends beyond ownership to encompass living relationships.

리매트리에이션 Rematriation

리매트리에이션(rematriation)은 식민화로 단절된 원주민의 땅과 지식, 문화적 실천, 관계를 되찾고 회복하는 과정입니다. 문화적 유산의 법적 반환에 주로 초점을 두는 리패트리에이션(repatriation)과 달리, 리매트리에이션은 땅을 돌보며 그 땅과 함께 살아가는 관계를 되살리고, 원주민의 돌봄과 책임 체계, 모계 지식을 회복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이 개념은 문화의 회복이 소유권을 되찾는 데 그치지 않고 삶 속에서 이어지는 관계까지 아우른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Skén:nen

A Kanien'kéha word meaning peace, balance, and wellbeing. Skén:nen is more than the absence of conflict; it describes a way of living grounded in harmony, respect, and right relationships with people, communities, and the natural world. It forms part of the greeting Skennen'kó:wa ken?—"Do you carry Great Peace?"

스칸나 Skén:nen

스칸나는 평화와 균형, 안녕을 뜻하는 가니엔게하어입니다. 단순히 갈등이 없는 상태를 넘어, 사람과 공동체, 자연 세계와 조화를 이루고 서로를 존중하며 올바른 관계를 맺는 삶의 방식을 가리킵니다. 이 말은 '당신은 커다란 평화를 품고 있습니까?'라는 인사말 '스칸나 고와 경?'(Skennen'kó:wa ken?)의 일부이기도 합니다.

Skennen'kó:wa ken?

Meaning "Do you carry Great Peace?", this Kanien'kéha greeting asks not simply how someone feels, but whether they embody peace, balance, and responsibility in their relationships with others and the world around them. The exhibition adopts this greeting as an invitation to reflect on peace as an active practice, cultural continuity and an aspirational goal rather than an abstract ideal.

스칸나 고와 경? Skennen'kó:wa ken?

'당신은 커다란 평화를 품고 있습니까?'라는 뜻의 가니엔게하어 인사말입니다. 단순히 상대의 기분이냐 안부를 묻는 것이 아니라, 타인과 자신을 둘러싼 세계와의 관계 속에서 평화와 균형을 지키고 책임을 다하며 살아가는지를 묻습니다. 이 전시는 이 인사말을 통해 평화를 추상적인 이상이 아니라, 삶 속에서 실천하고 문화를 이어 가는 과정이자 앞으로도 지향해야 할 가치로 바라보도록 이끍니다.

Tree of Peace

The White Pine is the central symbol of the Great Law of Peace. In Haudenosaunee tradition, its roots extend in the four directions, inviting all who seek peace to gather beneath its branches. The Tree of Peace represents unity, diplomacy, protection, and the responsibilities that accompany living together in balance.

평화의 나무 Tree of Peace

스트로브잣나무(White Pine)는 위대한 평화의 법을 대표하는 상징입니다. 호데노쇼니 전통에서 나무의 뿌리는 사방으로 뻗어 나가며, 평화를 바라는 모든 이를 가지 아래로 불러 모읍니다. 평화의 나무는 결속과 외교, 보호, 그리고 균형을 이루며 함께 살아가는 데 따르는 책임을 나타냅니다.

Tuscarora

The Tuscarora are the sixth nation of the Haudenosaunee Confederacy, joining in 1722 after migrating north from their original homelands in what is now North Carolina. Their inclusion strengthened the Confederacy while preserving the autonomy of each nation within the alliance.

투스카로라 Tuscarora

투스카로라는 오늘날의 노스캐롤라이나에 해당하는 본래의 터전에서 북쪽으로 이주한 뒤 1722년에 합류한 호데노쇼니 연맹의 여섯 번째 네이션입니다. 투스카로라의 합류로 연맹은 더욱 견고해졌고, 동시에 연맹 안에서 각 네이션의 자율성도 유지되었습니다.

Wampum

Wampum are cylindrical shell beads woven into belts that record agreements, laws, diplomatic relationships, and significant historical events. Within Haudenosaunee cultures, wampum belts are not decorative objects or currency; they are sacred records that preserve legal, political, and cultural knowledge and continue to play important roles in ceremonies and governance.

왐팜 Wampum

왐팜은 원통형 조개껍데기 구슬로, 이를 엮어 만든 벨트에는 합의와 법, 외교 관계, 중요한 역사적 사건이 기록됩니다. 호데노쇼니 문화에서 왐팜 벨트는 장식품이나 화폐가 아니라 법적·정치적·문화적 지식을 보존하는 신성한 기록이며, 오늘날에도 의례와 의사 결정 체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Language Note

This exhibition privileges Haudenosaunee and Kanien'kéha terms wherever possible. English translations are provided as guides rather than direct equivalents, as many concepts carry cultural, legal, and philosophical meanings that extend beyond a single English definition.

언어 표기 안내 Language Note

이 전시는 가능한 한 호데노쇼니 문화와 가니엔게하어의 고유 용어를 우선적으로 사용합니다. 각 번역어는 정확히 일대일로 대응하는 표현이라기보다 이해를 돕기 위한 길잡이입니다. 많은 개념은 하나의 단어만으로는 온전히 담기 어려운 문화적·법적·철학적 의미를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